

대학생이 인식한 도덕역량의 개념과 수준*

이 지 혜¹⁾

문 용 린²⁾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지각하는 도덕역량을 개념도로 구조화하고, 도덕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에 대한 개인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150명이 도덕역량에 대해 작성한 진술문을 61명의 학생이 종합·분류하고, 개념도를 그리기 위한 다차원 척도와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총 80개의 도덕역량 진술문이 도출되었으며, 개념도 분석을 통해 8개의 범주로 구분되었다. 도덕역량 범주는 일반적인 개인적인 역량군에 가까운 '사회성과 관계지향', '자기조절과 내적성숙', '자기관리와 리더십' 범주와 보다 도덕적이고 공동체 지향적인 '이타적인 시민의식',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 범주, 끝으로 일반·개인 영역과 도덕·공동체 영역의 중간에 위치하여 행위자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실행력과 실천의지' 범주로 분류되었다. 도출된 도덕역량 범주에 대한 인식수준과 실행수준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학생 147명과 직장인 100명에게 개인의 역량 수준을 평가하게 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도덕역량 범주는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이었으며, 중요도와 실행도 사이의 인식 차이가 가장 큰 범주로 나타났다. 도덕역량 80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은 직장인($M=5.21$)이 대학생($M=5.07$) 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5.21, p<.001$). 반면, 실행도 인식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의 평균값($M=4.71$)에 차이가 없었다.

주요어 : 도덕역량, 도덕성 발달, 개념도, 인식 차이

* 본 논문은 2012학년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중 일부를 발전시켰음.

1) 교신저자 :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객원연구원 (E-mail : jihye79@snu.ac.kr)

2)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I. 서론

역량의 사전적 정의는 “적절하거나 뛰어난 자격을 갖춘 상태나 질”이다(Lucia & Lepsinger, 1999). 더 나아가 역량이란 개인적 측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인류의 삶 전반에서 요구되며 활용될 수 있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최근에는 역량이 기술, 특질, 동기, 자기 개념, 태도, 가치 등과 같은 개인의 내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집합체적 개념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면서 인간의 다양한 심리 기저를 종합하여 설명하는 틀로 사용되고 있다. 조직뿐만 아니라 학업,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간의 다양한 심리적 기능에 역량 개념을 도입한 연구가 늘면서 생애역량, 문화역량, 지도성역량, 대인역량, 팀워크역량, 평화역량, 또래역량, 흡수역량 등의 역량 신조어가 늘어나는 이유도 이러한 역량 개념의 변화와 관련된다.

역량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정의는 크게 두 가지 주요 의미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훈련의 결과로 숙련된 수행, 즉 산출요소(output)와 관련된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숙련된 수행을 하기위해 요구되는 내적 변인들인 투입요소(input)와 관련된 의미로 보는 것이다(Hoffman, 1999).

지금까지의 도덕심리학은 도덕행위가 기반하고 있는 개인 내면의 도덕적 특성들에 초점을 맞춰왔다는 점에서 후자의 역량 개념에 가깝지만, 내적 특성과 관련된 역량의 정의들을 살펴보면 역시나 수행, 즉 내적 변인들의 ‘작용적’ 측면 또한 강조하고 있다(이지혜, 문용린, 2011).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역량중심 접근이 시도되는 배경에는 인성교육의 중요성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도덕성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자각한 연구자들의 간학문적 관심이 자리하고 있다.

‘도덕성과 역량’에 관한 논의는 21세기 들어 비교적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는 크게 도덕·윤리교육을 역량 관점에서 진단하는 이론 연구와 ‘도덕역량(Moral Competence)’이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도덕성을 측정하는 실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역량의 신조어들 중 유독 도덕역량은 ‘도덕성’과 ‘역량’이라는 다소 어색해 보이는 조합이다. 지도성역량, 팀워크역량, 문화역량 등과 같이 본래 역량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목표달성’을 위한 것으로 도덕역량과 달리 반드시 윤리적일 필요가 없다. 때문에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기고 희생시킨다는 전형적인 인식이 역량과 도덕성을 함께 하기 어려운 개념으로 만들고 말았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도덕성과 역량 개념에 대한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며, 역량을 중시하는 집단과 남들보다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은 타인을 이기고 희생시킨다는 의식이 깔려있다는 연구결과는 이를 뒷받침한다(Ellemers, Pagliaro, Barreto, & Leach, 2008; Straughan & Lynn, 2002).

역량의 다차원성에 주목한 긍정심리학자 Park과 Peterson(2006)은 이에 대해 도덕역량은 다른 역량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 아니며 모든 역량들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포괄적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이 내린 도덕역량의 정의는 ‘선한 삶을 추구하고 선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식, 능력과 동기로 가치 있고 선하다고 여겨지는 목표를 향한 행동과 직결되는 능력'으로, 역량 개념을 적용하여 도덕적 수행 능력을 설명한다.

Liszka(1999)는 저서에서 도덕역량을 '선한 도덕적 행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상호 의존하여 옳은 행동을 언제나 일관성 있게 수행하도록 숙달된 것'으로 정의하고 도덕역량이 도덕 정서, 도덕 강점, 덕목, 지혜, 그리고 도덕 지식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Jormsri, Kunaviktikul, Ketefian과 Chaowalit(2005)은 태국 간호사들을 인터뷰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덕역량을 '특정 상황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감정을 지각하고, 결정을 내리기 위해 그 감정을 성찰해보고, 상대방(환자)에게 최상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이와 같이 도덕역량의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양하지만, 도덕성 구성요소에 대한 그들의 강조가 궁극적으로 도덕행동의 수행으로 귀결된다는 점은 일관적이다. 즉, 도덕역량은 도덕성을 설명하는 그 어떤 개념보다도 '도덕행동'이 강조된 용어인 것이다.

이지혜와 문용린(2011)은 '도덕역량'이라는 키워드로 수행된 국내외의 이론 연구와 실험 연구 30여 편을 메타분석하여 도덕역량을 '도덕행동을 야기하는 추상적이고, 불안정하며, 가치 지향적인 복잡한 현상을 수반하는 심리기제를 설명하며, 개인 역량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집단 및 문화적 역량이 통합된 개념'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의에 근거하여 도덕역량의 실체를 밝힐 실증적인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계획된 실험연구

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그들은 기존의 문헌에 대한 메타분석 결과 도덕역량 연구방법으로 도덕적으로 귀감이 되는 인물의 역량모델링을 제안하였는데, 도덕 귀감자 연구는 인간의 도덕적 비범성 및 도덕적 잠재 능력에 대한 수용적 태도로부터 출발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덕성과 역량은 모두 상황 속에서만 발현되는 맥락 의존적인 속성을 가졌기 때문에 언제나 행동을 통해 발현되고 측정되어야 한다(Sandberg, 2000). 역량 연구와 도덕성 연구 모두 행동을 예측하는 분절된 요소로의 환원이 아닌, 비범한 수행 능력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는 것이다(이지혜, 문용린, 2011). 따라서 도덕역량을 확인하기에 가장 적합한 대상은 도덕적 수행이 강하게 드러나는 도덕 귀감자이다.

도덕귀감자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졌는데, Colby와 Damon(1992), Damon(2004), Walker와 동료들(Frimer & Walker, 2008; 2009; Matsuba & Walker, 2005; Walker, 1999; Walker & Frimer, 2007; Walker & Hennig, 2004; Walker & Pitts, 1998)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Damon(2004), Frimer와 Walker(2008)는 도덕 귀감자들의 비범한 도덕적 수행 능력을 '도덕적 수월성(moral excellence)'이라고 지칭하였다. Colby와 Damon(1992), Damon(2004)의 도덕귀감자 연구에 따르면, 훌륭한 사회운동가 중 사업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CEO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능력은 바로 도덕적 수월성이었다.

Walker와 동료들은 캐나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대규모 인식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대학생, 대학원생, 성인 약 2000명이 도덕귀감자의 특성(trait)으로 인식하고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개념도를 만들어 냈다(Walker, 1999; Walker & Hennig, 2004; Walker & Pitts, 1998). 연구 결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귀감자에 대한 인식에는 인지적 측면 이상의 성격이나 가치특성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배려가 남다른 사람, 정의로운 사람, 용기 있는 사람’으로 도덕귀감자의 유형을 나누었다. 연구결과, 각각의 유형에 대한 인식에는 겹쳐지는 특성들과 함께 뚜렷한 차이 또한 존재하였다.

Walker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인간상(moral personhood)에 대한 자연주의적 신념(naturalistic conception) 연구라는 포괄적인 주제에서 출발하여, ‘배려·정의·용기’ 유형으로 도덕귀감자를 세분한 이유는 도덕적 수행에도 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며 사람들은 그 다양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적 구분을 하기 때문이었다.

도덕역량 연구가 도덕귀감자 사례에 기반한다고 볼 때, Walker와 동료들이 수행한 도덕귀감자에 대한 인식 연구 결과는 도덕귀감자의 선정과 연구 방식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또한 Walker식의 연구 단계는 도덕역량 연구에 있어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분석하기에 앞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역량에 대한 인식 구조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논리를 뒷받침해 준다.

도덕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도덕적 수월성’은 ‘도덕역량과 같이 도덕적 수행으로부터 도출되었으며 도덕적 ‘능력’을 다루고 있는 개념

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도덕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도덕귀감자 인식 연구는 여전히 도덕귀감자의 성격 특성(trait)을 찾고 유형화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이 찾아낸 청렴이나 정직함과 같은 도덕귀감자들의 특성은 교육을 통해 개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Park & Peterson, 2006). 이러한 특성적 접근은 자칫 도덕적 수월성이 태어나면서부터 결정되는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이지혜, 문용린, 2011).

비단 도덕귀감자 사례에서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도덕적 문제 사태를 만났을 때 도덕적 수행을 기꺼이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도덕성’에 포함된 추상성과 가치의 문제, 상황맥락에 민감한 도덕행동 연구의 한계 등을 고려하다보니 역량의 관점에서 도덕성을 바라보기 어려웠던 것이다.

도덕역량 개념은 개인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도덕적 비범성을 찾아내고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틀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도덕성 발달 연구에서 역량 개념을 적용한 사례는 많지 않으며, 도덕역량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실증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덕역량이 역량의 새로운 측면이며,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도덕의 분야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문헌연구만으로는 그 개념을 규명하기 어렵다. 역량의 관점에서 도덕적 수행을 연구하고 도덕귀감자들이 보이는 도덕역량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도덕역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개념화하여 연구의 준거를 마련해야 한다.

도덕성 연구 분야에서 도덕역량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어떠한 능력을 도덕역량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국내에서는 도덕귀감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자체가 생소하다보니 그들을 선정하고 발굴하기 위한 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연구법(Concept Mapping)을 적용하여 도덕역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한다. 개념도 방법은 경험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개념과 현상의 구성요소, 잠재구조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하므로 도덕역량의 개념화 연구에 적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념도 연구법은 Trochim(1989)이 소개한 연구법으로 질적, 양적 연구법을 통합한 방법론이다. 개념도 방법은 연구대상이 인식하는 특정경험 즉, 질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이라는 다변량 통계분석법을 통해 양적으로 분석하여 인지 개념도라는 시각적 결과물로 제시해준다.

이미 국내에서는 개념도 연구법을 통해 대인역량, 팀웍역량, 또래역량과 같은 역량 신조어를 개념화 한 바 있으며, 본 연구의 토대가 된 Walker의 도덕귀감자 사례연구에서도 도덕귀감자들을 인터뷰하기 전 개념도 연구법을 통해 도덕귀감자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개념지도로 분석하고 추후 연구에 활용한 바 있다.

본 연구는 역량 신조어를 개념화하기 위한 선행연구 사례와 같이 개념도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도덕역량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식을 탐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덕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실행 수준 인식을 비교해보

고자 한다.

개념도 연구는 피험자의 참여의지와 연구자의 접근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집단을 연구 대상을 한정하였다. 때문에 결과를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도덕역량의 개념을 밝히기 위한 실험 연구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며 도덕역량에 관한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표집을 통한 개념도 연구가 진행될 것임을 밝힌다.

윤혜경과 이지연(2010)의 개념도를 활용한 또래역량에 관한 인식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간의 인식 차이를 확인한 바 있으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Matsuba와 Walker(2005)의 도덕귀감자 연구와 대규모 성인 표집을 실시한 Walker와 Hennig(2004)의 연구를 비교해볼 때 도덕역량에 대한 인식에서도 집단 간의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념도 분석을 통해 도출한 도덕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장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의 인식을 차이를 확인해보고자 한다.

개념도 분석을 통해 도덕역량의 요소와 범주를 밝힘으로써 도덕적 수행과 직결되는 도덕·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으며 추후 도덕귀감자 연구의 준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또한 도덕역량에 있어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는 도덕역량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역량에 대한 실제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도덕역량에서 개발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준거

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도덕역량은 어떠한가?

둘째, 대학생이 인식하는 도덕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는 어떠한가?

셋째, 대학생과 직장인이 인식하는 도덕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개념도 연구를 위해 개방형(free-listing) 설문을 작성하고 분류작업에 참여한 대학생 집단과 도출된 도덕역량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수준을 확인하는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으로 분류된다.

개념도 연구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현상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모집단에 대한 추측으로 일반화하는 추론과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이준희, 2008). 특히 개념도 연구는 설문 응답의 질에 의존하며 1단계 설문이 끝난 후 2단계 진술문 분류작업에 다시 참여해야 하는 까다로운 연구절차를 따르기 때문에 참여자의 참여 의지와 연구자의 표집 접근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서울과 지방 소재의 4년제 대학 두 곳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도덕역량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으로 확대 해석하기는 어려

우며 도덕역량의 개념화 연구를 위해 먼저 대학생 집단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제한하였음을 밝힌다.

개념도 연구의 1단계인 개방형 설문에 참여한 연구대상은 서울소재 A대학 76명(남 43.4%)과 지방소재 B대학 74명(남 27.0%)으로 평균연령은 21.8(SD 1.87)세였다. 개념도 연구의 1단계 자유응답 설문에 참여한 150명 중 희망자 61명을 선정하여 2차 진술문 분류 작업을 실시하였다. 진술문 분류작업에 참여한 대학생의 평균연령은 22.7(SD 2.24)세였고, 남학생은 23(36.7%)명, 여학생은 38(63.3%)명이었다.

중요도와 수행 수준 분석은 수집된 도덕역량 진술문에 대한 인식 수준과 집단 간의 발달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생 147(평균연령 21.8세, SD 1.87, 남 23.8%)명과 직장인 100명(평균연령 34.7세, SD 5.59, 남 46.0%)에게 개념도 연구결과 도출된 도덕역량에 대한 평가를 의뢰하였다. 다양한 직군의 직장인 참여자를 표집하기 위해 총 4개 직군(공무원 27%, 서비스업 9%, IT제조업 20%, 일반 회사원 44%)을 대상으로 비확률적 표집 중 유의표집을 실시하였다.

2. 연구도구 및 절차

개념도 연구

개념도 연구는 일반적으로 ① 연구주제와 대상선정 등의 개념도를 위한 준비, ② 아이디어의 산출, ③ 아이디어의 구조화, ④ 다차원 척도법과 군집분석으로 아이디어를 개념도로 표현하기, ⑤ 개념도의 해석, ⑥ 개념도의 활용의 6단계로 구성된다.

아이디어 산출단계: 개방형 설문. 응답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도덕역량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개방형 설문으로 도덕역량의 요소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였다. 개념도 연구 방법으로 역량을 연구한 사례(김창대, 민경화, 윤숙경, 최한나, 공은혜, 2008; 윤혜경, 이지연, 2010; 최윤미, 2009)와 Walker(1999)의 도덕 귀감자에 대한 인식연구를 참조하여 “남과 다른 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도덕적으로 귀감이 될 만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행동, 성격, 인성, 태도, 가치관 등 그가 보일만한 모든 도덕적인 역량에 대해 생각나는 단어들, 의견들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라는 질문을 만들었다.

설문은 2011년 5월 대학생 166명에게 실시하였고, 이 중 설문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과 불성실한 응답자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50명(회수율 90.4%)의 응답이 사용되었다. 설문에는 평균 25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다음 연구 단계를 위해 연락 가능한 e-mail과 전화번호를 받았다.

아이디어 종합 단계. 아이디어를 최종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수집된 아이디어들을 종합하고 편집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아이디어 진술문들을 종합할 경우, 공통된 아이디어는 통합하며 적어도 100개 이하로 축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ane & Trochim, 2007). 연구자는 진술문 분류 작업을 위해 개방형 설문을 통해 도출된 도덕역량의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235명이 도출해 낸 진술문 중 부적절한 8개의 진술문(예, ‘마더 테레사’와

같이 인물명을 적은 경우)과 연구 참여자의 2.5%¹⁾ 이하의 응답률을 제거하자 849개의 진술문이 수집되었다. 대학생은 1인당 평균 4.9개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후 생성된 진술문 내용을 명료화하여 진술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제거하여 개념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진술문을 확정하였다. 먼저 각각의 진술문을 비교하여 중복된 진술문을 통합(예, ‘정직, 정직한 사람, 정직함’은 ‘정직함’으로 통합)하자 291개의 진술문이 추려졌다. 이때 가능한 아이디어 원래의 뜻을 유지하도록 수정을 최소화하였다. 끝으로 연구자와 교육심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대학원생 2인이 논의하여 동일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 진술문을 통합(예, ‘남을 속이지 않음, 거짓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정직함’으로 통합)하여 최종분류에 사용 될 진술문 80개를 최종 산출하였다.

진술문 분류 단계: 학생, 대학원생. 최종 확정된 80개의 진술문은 분류 작업을 위해 카드에 인쇄되었다. 인쇄된 80개의 카드는 무선화 하여 유사한 아이디어들이 가까운 묶음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여 분류 안내문, 분류한 카드의 범주명을 적기 위한 메모지를 분류 세트로 구성하였다.

분류기준은 80개의 진술문을 ‘유사해 보이는 것끼리’ 모으는 것으로 분류시 제약은 1) 모든 집단을 한 개의 집단에 모으지 말 것, 2)

1) Bedi(2006)는 적어도 1명 이상이 언급한 중복된 요소들은 통합시키고 연구 참여자의 2.5% 미만이 언급한 요소들은 제거하였다(민경화, 최윤정, 2007 재인용).

한 집단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카드가 들어갈 것, 3) 집단의 개수는 자유롭게 정하라는 것이다(Trochim, 1989). 그리고 자료분석 단계에서 다차원 척도분석과 군집분석을 통해 군집화 될 진술문 집단의 범주명 작성 시 참조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분류한 카드집단에 대한 집단명을 메모지에 적고 분류한 카드 집단과 함께 묶어서 제출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분류 작업은 2011년 6월 2회에 걸쳐 대학 강의실에서 실시하였다. 이 단계에서 도출된 61명의 진술문 분류 결과를 개념도 분석을 위한 다차원 척도 분석의 자료로 사용하였다.

역량수준 검증

개념도 연구를 통해 산출된 80개 진술문이 담긴 설문지는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역량을 수행하는 실행 수준을 7점 척도로 표시하고, 응답자의 성별과 연령,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 설문에는 약 20분이 소요되었고 직장인 집단의 설문은 e-mail로 수집하였으며, 2011년 8월에 자료 수집을 마쳤다.

3. 자료분석

개념도 분석법: 다차원분석, 군집분석

개념도를 그리는 데 사용되는 원자료(raw data)는 개방형 설문으로 수집한 진술문을 각 참여자가 분류한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61명의 참여자가 80개의 진술문을 분류한 결과이다.

연구 참여자의 수만큼 분류된 카드를 코딩하여 61개의 유사성 행렬을 만든 후, 전체 파

일을 합산한 집단 유사성 행렬(GSM: group similarity matrix)을 제작하여 이를 다차원 척도법(multi-dimensional scaling: MDS)으로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보다 더 빈번하게 같은 것끼리 묶인 진술문들이 개념도 상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된다(Kane & Trochim, 2007).

그 다음 다차원 척도법으로 산출된 x, y좌표 값에 따라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개념도 분석을 위해 위계적 군집분석을 할 경우 Ward 연결법이 거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료를 의미 있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적합하다(Paulson, Truscott, & Stuart, 1999; 김창대 등, 2008 재인용).

군집의 수는 분석결과 도출된 덴드로그램에서 1미만의 거리 값으로 결정하였으며, 추가로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군집의 개념적 명료성과 군집들 간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위계적 군집 분석결과 도출된 군집에 대한 명명은 좌표 상에 표시된 진술문들의 상대적 위치 범주에 묶인 진술문 내용과 연구 참여자들이 카드 분류 단계에서 기술한 범주 명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윤혜경, 이지연, 2010).

끝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념도를 그렸다.

역량수준 설문

수집된 247명의 데이터는 SPSS(PASW 18)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집단 별로 80개 도덕역량 진술문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의 평균비교와 순위 확인을 위한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집단 별로 중요도와 실행 수준 간의 유의미

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 간의 역량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도덕역량 개념도

개념도를 그리기 위한 차원의 수는 결과에 대한 해석의 용이성과 차원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stress 값의 변화를 확인하는 팔꿈치 기준(elbow criterion)을 사용하여 2차원으로 결정하였다. stress 값은 다차원척도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수치로 다차원척도분석

을 통해 최적으로 변환된 자료가 전체분산에서 어느 정도를 설명하지 못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이다(이균희, 2008). 본 연구에서 2차원 개념도 제작에 적합한 stress 값은 .049로 Kruskal의 기준에 따라 다차원척도분석 결과에 대한 적합성이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 간 진술문과 군집 내 진술문들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도덕역량 군집을 도출하였다. 군집의 수는 해석 가능성과 해석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내용과 문맥의 의미에 따라 나눈 것이며 교육학 박사 3인의 검증을 거쳤다.

연구결과, 대학생들이 지각한 도덕역량의 개념도는 그림 1과 같다. 도덕역량은 ‘이타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관계지향’, ‘실행력과 실천의지’,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자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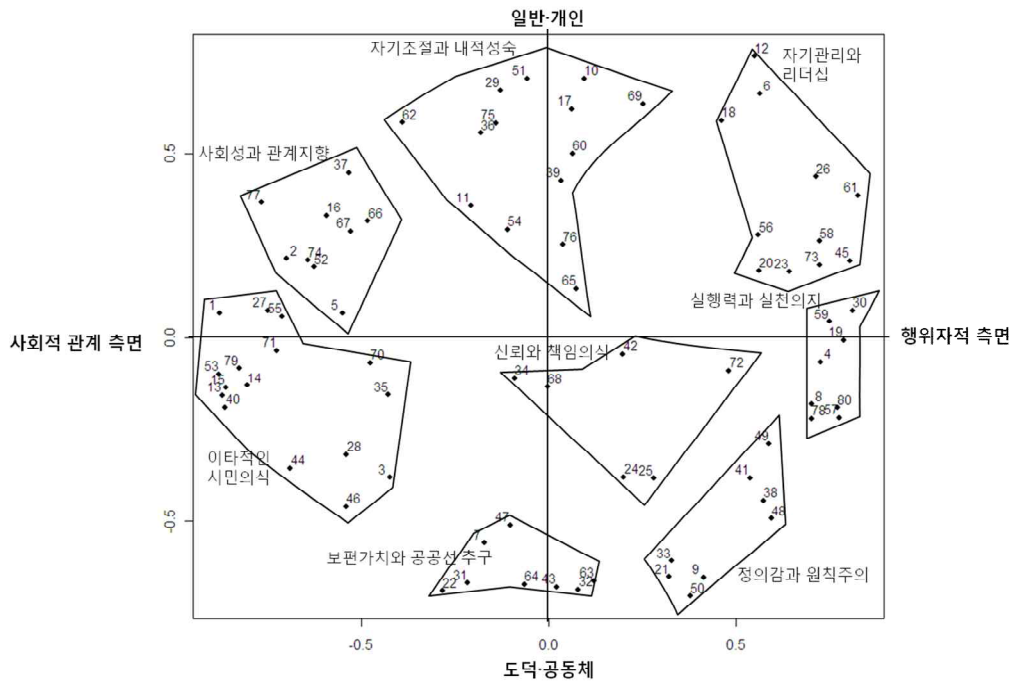


그림 1. 대학생이 지각한 도덕역량 개념도

절과 내적성숙, '자기 관리와 리더십',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의 8개 군집으로 구성되었다.

x축을 나타내는 1차원은 사회적 관계지향 영역(개념도의 왼쪽)과 행위자적 영역(개념도의 오른쪽)으로 구분되었다. 개념도 상에서 왼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이타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관계지향인 반면, '실행력과 실천의지', '자기 관리와 리더십',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은 개념도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자기조절과 내적성숙'은 개념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y축을 나타내는 2차원은 일반·개인 영역(개념도의 위쪽)과 도덕·공동체 영역(개념도의 아래쪽)으로 구분되었다. 개념도 상에서 위쪽에 위치한 범주들은 '사회적 관계지향', '자기조절과 내적성숙', '자기 관리와 리더십'인 반면, 개념도의 아래쪽에는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이 위치하였고, '이타적인 시민의식'과 '실행력과 실천의지'는 중간에 위치하였으나 아래쪽으로 치우친 경향을 보였다.

'이타적인 시민의식'은 '나눔과 기부', '나보다 남을 생각함', '인간애, 사랑', '착한 품성', '예의범절이 바름' 등 총 10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사람과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외부로 표현되는 이타적인 특성을 보이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도덕적 시민의 자질을 보여준다.

'사회성과 관계지향'은 '감사하는 마음가짐', '겸손함', '이해심, 아량이 넓음', '사소한 것도 의미있게 여김', '좋은 인상', '좋은 인간관계'

등 총 8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좋은 대인관계를 위한 역량으로 외부로 표현되는 사회적 특성을 보이며, 개인의 삶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인간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실행력과 실천의지'는 '굳은 의지', '높은 추진력으로 행동함',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 '자신감과 떳떳함', '결단력' 등 총 6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개인 내적인 강인함으로 개인 내부 역량으로 표현되며, 동시에 공동체의 변화를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 실천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준다.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는 '공공의 이익을 생각 함',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시 함', '보편적인 윤리를 지킴', '양심을 거스르지 않음', '정직함, 속이지 않음' 등 총 6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도덕의 영역에서 요구하는 관계지향적 역량과 도덕행동으로 표현되는 역량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도덕적인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핵심 가치들을 담고 있다.

'자기조절과 내적성숙'은 '긍정적임', '내적인 성취를 중시 함', '반성과 성찰의 자세', '유연한 태도', '인내심',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함', '사려깊고 신중함' 등 총 9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개인의 내적인 자아성찰과 높은 수준의 자기조절 능력 및 내적인 성숙을 반영하며, 그들이 이룬 내적 성취는 주변인의 귀감이 됨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적 측면으로까지 확대된다.

'자기 관리와 리더십'은 '경험을 통한 뛰어난 식견', '깊은 학식', '리더십', '미래지향적', '열정적임', '철저한 자기 관리' 등 총 10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타인을 이끌 수 있는 개인 내부의 뛰어난 능력과 자질로 구성된, 사회적인 성공과 관련된 역량이다. 개인 스스로 노력하고 발전하며 열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혁신가로 행위자적 특성을 보인다.

‘정의감과 원칙주의’는 ‘규칙과 원칙을 준수’, ‘도덕, 선악의 구분이 명확함’,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행동’, ‘신념에 따라 행동함’, ‘용기있음’ 등 총 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내면의 확고한 도덕적 기준과 신념을 행동으로 표출하는 도덕귀감자의 전형에 가깝다. 도덕적인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필요한 개인 내부의 역량으로 내부지향을 보이는 도덕적인 행동가의 특성이다.

‘신뢰와 책임의식’은 ‘말과 행동이 일치함’, ‘사람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믿음’, ‘중립적인 태도, 중용을 지킴’, ‘책임감’ 등 총 5개의 진술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군집은 ‘정의감과 원칙주의’ 군집과 통계적으로 유사하지만, 도덕적 신념과 일관성에 대한 지향이 보다 낮으며, 공동체적 특성을 보임과 동시에 보다 일반 시민으로서의 개인 역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다른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2. 도덕역량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검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문항내적일관성을 측정한 결과, 8개 범주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최소 0.67에서 최대 0.90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대학생이 인식한 도덕역량 진술문의 중요도 값과 실행도 값을 산출하여 그 차이 값을 통

하여 인식 차이를 분석하였다. 중요도에서 실행도를 뺀 결과치는 음(-)의 값이 높을수록 중요도에 비해 실행을 많이 한다는 평가이고, 양(+)의 값이 클수록 중요도에 비해 실행을 하지 못한다는 평가이다.

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80개 항목의 대부분에서 실행도보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즉, 대학생들은 도덕 행동을 하는 데에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대부분의 역량에 대해 스스로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고 평가하였다.

대학생들이 도덕 행동을 하는 데에 중요한 역량이라고 인식하는 정도 보다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정도가 더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총 22개 항목이었다. 이 항목들은 중요도에서 실행도를 뺀 값이 음의 값을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높은 순서대로 10개 항목을 제시하면, ‘좋은 인상’, ‘미래지향적, 계획적임’,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자부심’,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음’, ‘타인의 감정에 민감함’,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 ‘깊은 학식, 지식이 많음’, ‘내적인 성취를 중시함’, ‘열정적임’, ‘중립적인 태도, 중용을 지킴’이다. 10개 항목의 대부분은 개념도 상에서 y축 위쪽에 위치하여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삶과 관련된 항목들로 주로 ‘사회적 관계지향’과 ‘자기관리와 리더십’ 범주에 분포해 있었다.

도덕역량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9개 항목을 제외한 61개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학생이 인식한 도덕역량의 중요도 평균은 5.07점, 실행도 평균은 4.71점으로 중요도를 인

표 1. 도덕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차이 ($n=150$)

범주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행도 평균	t 값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행도 평균	t 값
이타적 시민 의식	1	가족애	5.02	5.03	0.04	40	소외되고 가난한 이를 도움	5.51	3.86	1.70**
	3	검소함	3.85	4.12	-0.27*	44	어른을 공경함	5.24	5.16	0.04
	13	나눔과 기부	5.25	3.75	1.53**	46	예의범절이 바름	5.25	5.34	-0.07
	14	나보다 남을 생각함	5.45	4.13	1.29**	53	인간에, 사랑	5.79	4.93	0.85**
	15	남을 잘 도움	5.46	4.44	1.00**	55	인자함, 너그러움	5.21	4.46	0.76**
	27	바른 언행, 언어습관	5.66	5.18	0.44**	70	진심에서 우리나오는 행동	5.68	4.95	0.72**
	28	반성과 성찰의 자세	5.16	5.09	0.06	71	착한 품성	5.49	4.77	0.71**
	35	사람을 차별없이 존중함	6.13	4.66	1.48**	79	현신적임	5.19	3.98	1.12**
사회적 관계 지향	2	감사하는 마음가짐	5.42	4.85	0.57**	66	좋은 인간관계	4.73	5.02	-0.29*
	5	검소함	4.60	4.76	-0.15	67	좋은 인상	4.12	4.98	-0.85**
	16	남의 말에 귀 기울임	5.29	5.00	0.29**	74	친절하고 씩씩함	4.64	4.82	-0.17
	37	사소한 것도 의미있게 여김	4.66	4.71	-0.04	77	타인의 감정에 민감함	4.33	4.94	-0.61**
	52	이해심, 포용력	5.42	4.94	0.47**					
실행력과 실천 의지	4	결단력	4.91	4.29	0.62**	57	자기 주관이 뚜렷함	4.66	4.76	-0.10
	8	굳은 의지	5.52	4.67	0.85**	59	자신감, 떳떳함	5.15	4.73	0.42**
	19	높은 추진력으로 행동함	4.55	4.33	0.22	78	판단한 바를 행동으로 실천함	5.58	4.93	0.65**
	30	변화를 추구하는 태도	3.79	4.31	-0.51**	80	확고하고 강단있는 성격	4.82	4.24	0.57**
보편 가치와 공공선 추구	7	공공의 이익을 생각 함	5.65	4.60	1.04**	43	양심을 거스르지 않음	6.07	5.20	0.87**
	22	도덕적인 행동을 우선시 함	5.91	4.71	1.19**	47	올바른 가치관을 가짐	6.08	5.36	0.73**
	31	보편적인 윤리를 지킴	5.70	5.48	0.22*	63	정의로움	5.76	4.72	1.04**
	32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청렴함	5.92	5.39	0.53**	64	정직함, 속이지 않음	5.83	5.15	0.68**
신뢰와 책임 의식	24	말과 행동이 일치함	5.63	4.63	1.00**	42	신뢰할 수 있음	5.40	5.28	0.11
	25	모범을 보임, 술선수법	5.55	4.59	0.95**	68	중립적인 태도, 중용을 지킴	4.38	4.71	-0.33*
	34	사람과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믿음	5.25	4.68	0.57**	72	책임감	5.73	5.49	0.24*

표 1. 도덕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차이 ($n=150$)

(계속)

범주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행도 평균	t 값		진술문	중요도 평균	실행도 평균	t 값
정의감과 원칙 주의	9 규칙과 원칙을 준수	5.75	5.28	0.46**	41	신념에 따라 행동 함	5.50	5.00	0.50**
	21 도덕, 선악의 구분이 명확함	5.38	4.99	0.38**	48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뚜렷함	5.47	5.18	0.29*
	33 불의와 권력에 굴하지 않음	5.81	4.88	0.92**	49	용기있음	5.37	4.15	1.21**
	38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행동	5.20	4.13	1.06**	50	원리원칙을 지킴	5.41	5.18	0.22*
자기 조절과 내적 성숙	10 근면, 성실함	5.04	4.92	0.11	54	인내심	5.07	4.83	0.23
	11 긍정적인 인생관	5.02	5.00	0.02	60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함	5.04	4.48	0.56**
	17 내적인 성취를 중시 함	4.59	5.04	-0.45**	62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음	3.52	4.18	-0.66**
	29 배려함	5.53	5.16	0.36**	65	존경을 받음	4.36	3.99	0.36**
	36 사려깊고 신중함	5.08	4.81	0.27*	69	지혜로운 판단	5.47	4.49	0.98**
	39 성숙한태도	5.42	4.48	0.93**	75	침착하고 차분함	4.45	4.77	-0.31*
자기 관리와 리더십	51 유연한 태도, 융통성	4.74	4.76	-0.02	76	타인에게 긍정적 영향을 주고 성장시킴	5.20	4.25	0.95**
	6 경험을 통한 뛰어난 식견	4.49	3.98	0.51**	45	열정적임	4.22	4.60	-0.38*
	12 깊은 학식, 지식이 많음	3.38	3.89	-0.51**	56	자기 자신에게 솔직함	4.94	5.00	-0.05
	18 노력함	4.93	5.15	-0.21	58	자발성, 적극성	4.95	4.44	0.51**
	20 다수를 설득 할 수 있는 대화능력	3.93	3.93	0.00	61	자신의 분야에 대한 자부심	3.79	4.63	-0.84**
	23 리더쉽	3.93	3.93	0.00	73	철저한 자기관리	4.44	4.53	-0.08
	26 미래지향적, 계획적임	3.67	4.62	-0.95**					

* $p<0.05$, ** $p<0.01$

식하는 수준과 실행도를 인식하는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5.46$, $p<.001$).

대학생 집단의 범주별 중요도-실행도 차이
중요도 인식 수준이 높은 범주는 표 2와 같

이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정의감과 원칙 주의', '이타적인 시민의식'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가장 큰 범주 또한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이타적인 시민 의식', '정의감과 원칙주의' 순이었다.

대학생 집단의 도덕역량 8범주에 대한 중요

도와 실행도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대학생 집단에서는 ‘사회적 관계지향’, ‘자기 관리와 리더십’ 범주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정도보다 실행한다고 응답한 수치가 더 높았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범주에서는 실행도보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의 인식 차이

직장인 집단의 중요도-실행도 인식 차이

직장인이 인식한 도덕역량의 중요도 평균은 5.21점, 실행도 평균은 4.71점으로 중요도를 인식하는 수준과 실행도를 인식하는 수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10.56, p<.001$).

직장인 집단의 도덕역량 8범주에 대한 중요도와 실행도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결

과, 표 2와 같이 직장인 집단에서는 8개 범주 모두 실행도보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자기 관리와 리더십’을 제외한 나머지 7개 범주는 중요도와 실행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의 인식 차이 비교

도덕역량 80개 항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 수준은 직장인($M=5.21$)이 대학생($M=5.07$) 보다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t=-5.21, p<.000$). 반면, 실행도 인식 수준에서는 두 집단 간의 평균값($M=4.71$)에 차이가 없었다.

그림 2, 그림 3과 같이 도덕역량의 8범주에 따라 대학생과 직장인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차이를 비교해본 결과, 직장인과 대학생의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은 범주별 평균값과 순위에 있어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표 2.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의 범주별 중요도와 실행도 인식 차이

범주	대학생 집단($n=147$)					직장인 집단($n=100$)				
	중요도	실행도	중요도-실행도		$t_{값}$	중요도	실행도	중요도-실행도		$t_{값}$
	평균	평균	평균	순위		평균	평균	평균	순위	
이타적인 시민의식	5.33	4.62	0.71	2	7.60**	5.44	4.68	0.76	1	10.20**
사회적 관계지향	4.80	4.89	-0.08	7	-0.93	4.96	4.78	0.18	7	2.22*
실행력과 실천의지	4.87	4.53	0.34	5	3.22**	4.96	4.48	0.48	4	5.66**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5.87	5.07	0.79	1	8.55**	5.84	5.10	0.73	2	9.60**
자기조절과 내적성숙	4.89	4.65	0.24	6	2.94*	5.10	4.62	0.47	5	6.37**
자기 관리와 리더십	4.24	4.43	-0.18	8	-1.81	4.64	4.48	0.15	8	1.58
정의감과 원칙주의	5.49	4.85	0.63	3	6.35**	5.57	4.84	0.72	3	8.57**
신뢰와 책임의식	5.32	4.90	0.42	4	4.67**	5.36	4.90	0.46	6	6.13**

* $p<0.05$, ** $p<0.01$



그림 2. 대학생과 직장인의 중요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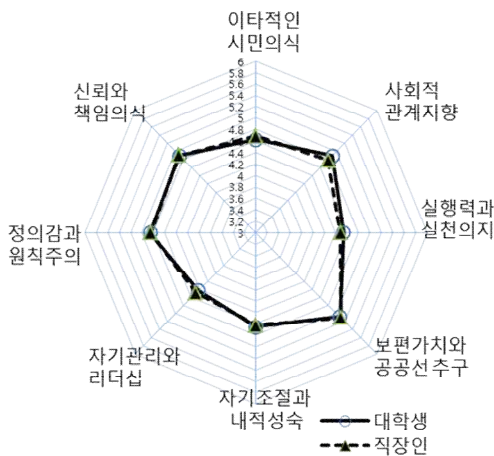


그림 3. 대학생과 직장인의 실행도 인식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의 도덕역량 8범주에 대한 중요도 인식 차이에 대한 대응표본 t -검증 결과, 직장인의 중요도 평균이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범주는 ‘자기관리와 리더십’($t=-5.79, p<.001$), ‘자기조절과 내적성숙’($t=-3.62, p<.01$)이었다.

실행도 인식에서는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범주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인간의 도덕적 비범성 및 도덕적 잠재 능력에 대한 가능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현재 우리사회에서는 ‘봉사활동시간’과 ‘봉사상’ 등 도덕적 실천을 드러내는 증거자료가 입시와 취업을 위한 일명 ‘스펙’으로 인정되다 보니 돈을 주고 도덕적 수행을 사고파는 행위마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진정으로 도덕적 귀감이 되는 인물은 누구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은 도덕성 연구자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우리는 사회 전반에서 남과 다른 비범한 도덕적 수행을 보이는 이들의 사례들을 접한다. 그들이 도덕 사태를 맞이하는 태도와 행동에는 평범한 사람과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는데, 도덕 행동을 유발하는 인간 내부의 심리기제에 초점을 맞춘 도덕심리학의 전통적인 체계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 도덕적 수행 역량을 갖춘 도덕귀감자 연구에서는 도덕성을 분절된 요소로 보지 않고 비범한 도덕적 수행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량’이 눈에 보이는 수행이나 행동만이 아닌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잠재 능력까지를 포괄하는 총체적 개념이며, 개인의 다양한 내적인 특성을 포괄하는 집합체적 성격을 가졌다는 점에서 역량중심접근을 통해 도덕성의 작용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도덕성에 대한 역량중심접근이 갖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덕역량’이라는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했다. 본 연구는 도덕역량이라는 개념을 구조화하기 위해 먼저 대학생에게 일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인식을 도출하여 개념화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도덕역량에 대한 인식 진술문 80개는 8개 군집으로 범주화되었다. 개념도 상에서 x축을 기준으로 8개 범주의 특성을 확인하면, ‘이타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관계 지향’ 범주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관계에 주로 사용되며 역량의 방향성이 외부(개념도의 왼쪽)를 향하였다. ‘실행력과 실천의지’, ‘자기 관리와 리더십’,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 범주는 개인 행위자로서 요구되는 역량으로 역량의 방향성이 개인 내부(개념도의 오른쪽)를 향하였다. 개념도의 중간에 위치한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자기조절과 내적성숙’ 범주는 관계자적 특성과 개인 행위자적 특성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개념도 상에서 y축을 기준으로 8개 범주의 특성을 확인하면,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 범주는 도덕적 가치와 공동체주의적 지향성(개념도의 아래쪽)을 나타냈고, ‘사회적 관계지향’, ‘자기조절과 내적성숙’, ‘자기 관리와 리더십’ 범주는 일반적인 개인주의적 가치 지향(개념도의 위쪽)에 해당하였다. 이는 도덕적인 수행이 반드시 도덕적인 가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목표의식, 사회성, 자기관리 능력 등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역량들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타적인 시민의식’과 ‘실행력과 실천의지’는 일부 역량이 y축에 걸쳐져 있으나 군집 전체로 볼 때 아래쪽으로 치우쳐져있어 공동체 영역에 보다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800명의 캐나다 성인에게 용감한 귀감자(brave exemplar), 배려하는 귀감자(caring exemplar), 정의로운 귀감자(just exemplar)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각각의 개념도를 작성한 Walker와 Hennig(2004)의 연구는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한 결과 상당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들은 사람들이 인식하는 용감한 귀감자의 특성을 행위자적(agentive) 차원과 헌신적인(selfless) 차원을 축으로 ‘헌신함’, ‘자신감’, ‘자기희생적’, ‘영웅적 강인함’, ‘용맹함’의 5개 군집으로 구성하였다. 정의로운 귀감자는 특징적(particularity) 차원과 성격적(character) 차원을 축으로 ‘이성적인’, ‘양심적·성실한’, ‘정직함’, ‘원칙주의’, ‘공정성’의 5개 군집으로 나누었다. 끝으로 배려하는 귀감자는 감정적인(emotive) 차원과 진심어린(genuine) 차원을 중심으로 ‘이타주의’, ‘애정과 공감’, ‘정직과 관련된’ 3개 군집으로 나누었다.

각 군집들의 하위요소와 범주 명을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이타적인 시민의식’ 범주는 Walker와 Hennig(2004)의 인식연구 중 배려하는 귀감자의 ‘이타주의(예, 이타적, 나눔과 봉사, 자비, 남을 먼저 생각함, 희생적임, 인간애)’, ‘애정과 공감(가족애, 인자함, 착한 품성, 진심어린, 받아들임)’과 용감한 귀감자의

2) 괄호 안의 역량은 두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진술문임

‘자기희생적(예, 착한 품성, 헌신적인, 도움을 주는, 예의바른)’ 범주와 유사하였다.

‘사회적 관계지향’은 배려하는 귀감자의 ‘애정과 공감(예, 감정에 민감함, 이해심, 사려깊음, 좋은 인간관계, 친절함, 짝짝함, 친근함, 남에 말에 귀 기울임, 받아들임, 부드러운, 따뜻한)’ 범주와 유사하였다.

‘실행력과 실천의지’는 용감한 귀감자의 ‘자신감(예, 자신감, 자기 확신, 자기 효능감, 굳은 의지, 결단력, 강한 자기 주관, 독립심)’ 범주와 유사하였다.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는 정의로운 귀감자의 ‘정직함(예, 정직한, 진실된, 속이지 않는)’과 ‘원칙주의(예, 올바른, 명예로운, 법을 존중하는, 올바른 가치관, 도덕적인,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청렴함)’ 범주와 유사하였다.

‘자기조절과 내적성숙’은 배려하는 귀감자의 ‘정직과 관련된 특성(예, 진심어린, 존경을 받는, 사려깊은, 의지할만한)’과 ‘애정과 공감(예, 사려깊음, 긍정적인, 타인을 성장시킴)’ 범주와 유사하였다.

‘자기 관리와 리더십’은 정의로운 귀감자의 ‘이성적인(예, 교육을 잘 받은, 깊은 학식, 지적인), ‘양심적인·성실한(예, 열심히 일하는, 리더십, 삶의 균형, 노력함, 미래 지향적, 선견 지명)’과 용감한 귀감자의 ‘헌신함(예, 열정적임, 목표지향적, 노력함, 야망있는)’ 범주와 유사하였다.

‘정의감과 원칙주의’는 정의로운 귀감자의 ‘원칙주의(예, 규칙 준수, 원리원칙을 지킴, 법을 지킴, 옳고 그름의 구분, 옳음, 도덕과 윤리 지향)’와 공통된 하위요소가 가장 많았고,

용감한 귀감자의 ‘용맹함(예, 불의에 굴하지 않음, 용기있음, 두려움 없음)’ 범주와 유사하였다.

끝으로, ‘신뢰와 책임의식’은 정의로운 귀감자의 ‘공정함(예, 중립적, 편견에 치우치지 않음, 민주적인, 공평함)’ 범주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지각한 도덕역량의 8개 군집 중 ‘이타적인 시민의식’, ‘사회적 관계지향’과 ‘자기조절과 내적성숙’은 그들의 연구에서 주로 배려하는 귀감자의 특성을 보였고, ‘실행력과 실천의지’는 용감한 귀감자의 특성과 가장 유사하였으며,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자기 관리와 리더십’,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은 정의로운 귀감자의 특성과 겹치는 부분이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 때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의 ‘도덕역량’ 개념 속에는 도덕귀감자의 유형 중 ‘정의로움’과 관련된 인식이 가장 크게 자리한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그러나 도덕역량을 유형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개념이라고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용감한 귀감자, 봉사 귀감자, 사회운동 귀감자, 정의로운 귀감자 등 학자들이 구분해 놓은 귀감자(exemplar)의 유형은 다양하나 여러 도덕 영역의 도덕귀감자들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역량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Walker와 Hennig(2004)의 연구 또한 도덕귀감자의 유형에 따른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였지만 결론적으로 세 유형의 특성 간에는 중첩되는 부분이 더 많았다.

Damon(2004)이 성공한 사회운동가 사례로부터 도출한 ‘공감능력’,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

는 선한 목적의식, '변화에 대한 개방성', '도덕적 가치에 대한 자기 확신',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태도', '도덕이 중심화 된 자아의 실천' 등과 같이 오랜 기간 도덕적 수행을 해온 도덕귀감자들에게서는 수행의 영역을 뛰어넘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역량이 존재하는 것이다.

인식을 통해 확인한 '도덕역량의 구성요소'들을 도덕귀감자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이렇듯 모든 도덕행동의 유형에 작용하는,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도덕역량을 확인해야 할 것이다.

두 연구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유사한 범주를 찾기 어려웠던 군집은 '자기조절과 내적성숙'이었다. 이 군집은 개인의 내적인 자아성찰과 고도로 성숙한 자기조절 및 내적인 성숙을 반영함으로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역량이다.

Walker와 Hennig(2004)는 세 부류의 도덕귀감자 각각에 대해 평균 110개 이상의 진술문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한 80여개의 진술문은 위 3개의 요소를 제외하고 모두 그들의 코드북에서 일치하거나 유사한 진술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지 않음', '반성과 성찰의 자세', '내적인 성취를 중시 함'의 도덕역량 진술문은 유사한 진술문이 발견되지 않았다.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이 도덕귀감자에게 기대하는 깊은 성찰과 내적 성취는 도덕귀감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 문화적 특수성, 혹은 도덕성에 대한 한국인 고유의 인식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유사하게, 부정직 행위인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인식 유형을 연구한 문용린, 김민강 및 이지혜(2008)의 연구

에서 한국인은 동양 문화권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인식 유형을 보여준 바 있다.

셋째, 대학생이 인식한 도덕역량의 중요도 평정에서는 80개 역량 중 58개 역량에서 실행하는 정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다. 중요도보다 실행도 인식이 높게 나타난 '사회적 관계지향'과 '자기관리와 리더십' 범주는 개념도 상에서 개인 영역에 속한 범주였다. 실행도 순위만을 놓고 볼 때 공동체 영역과 개인 영역의 인식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중요도 인식 수준과의 차이로 비교할 때, 중요도에 비해 실행도 인식이 낮은 범주는 '보편가치와 공공선 추구', '이타적인 시민의식', '정의감과 원칙주의', '신뢰와 책임의식' 순으로 나타났는데 모두 개인 영역의 반대편인 공동체 영역에 속한 범주였다.

따라서 이미 중요성을 자각하고 있는 '도덕·공동체 영역'의 실행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덕목을 강조하고 가치를 전수하는 지식 위주의 인성교육이 아닌, 도덕역량을 수행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실행 전략을 가르치는 실천 중심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덕역량의 한 범주로 '실행력과 실천의지'가 개념화 되었듯이 도덕적 수행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에 직접 관여하는 역량인 것이다.

넷째, 대학생과 직장인 집단의 실행도 인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중요도 인식에 있어 개인 영역의 '자기관리와 리더십', '자기조절과 내적 성숙'에서 직장인이 대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는데, 이는 직장인의 평균연령이 대학

생보다 열 살 이상 높으며 다양한 사회경험과 인간관계를 겪으면서 자기관리능력과 성숙한 내면의 중요성을 실감했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도덕성 연구에 있어 개인이 처한 환경과 경험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최근 Kim과 Sankey(2009)는 도덕심리학에 신경생물학 이론인 역동적 체계 접근(Dynamic System Approach)을 적용하여 도덕행동이 불안정하게 나타나는 이유를 도덕성 발달이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하며, 심한 개인차와 상황특수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경험과 맥락의 변화에 따라 비선형적이고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 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도덕성 연구에 있어 유기체가 속한 환경과 생애 경험을 고려해야 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 연구의 제한점과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덕역량 연구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으므로 장기적인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덕역량에 대한 실험 연구의 첫 단계에 해당하며 대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했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남녀, 집단, 세대 간의 차이 등, 보다 광범위한 표집을 통해 도덕역량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양한 도덕적 수행을 보이는 도덕귀감자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지원되어야 한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용감한 시민상을 받은 도덕귀감자, 봉사상을 받은 도덕귀감자, 사회공헌을 한 도덕귀감자들에 대한 국가지원의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Walker & Frimer, 2007)

가 진행된 바 있다.

둘째, 한국 사회의 도덕적 롤모델을 찾아야 한다. 이제는 동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도덕귀감자를 발굴하고 도덕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하여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귀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도덕역량 진술문과 범주는 도덕귀감자를 발굴하고 검증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셋째, 도덕역량의 관점에서 도덕·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도덕역량은 개인역량과 도덕·공동체 역량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도덕적 수행이 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도덕역량의 강화가 곧 개인 삶의 성공과 행복을 지속시키는 역량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도덕역량이 개인과 공동체 역량 모두를 포괄한다는 인식은 개인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도 도덕성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기업의 성인학습에 있어 도덕교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끝으로, 외국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였듯이, 도덕성을 바라보는 한국인의 심리에는 우리만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할 수 있다. 문화심리학의 관점에서 한국인의 심층심리 속에는 정, 한, 우리성, 외국과는 다른 한국의 부모-자녀관계 등 확연히 드러나는 고유한 특성이 있다(최상진, 2011). 한국 사회의 도덕적 인간상 연구에 따르면 관계에 기반한 정, 우리성 등은 한국인에게 도덕적 동기 역할을 하며, 도덕적 정서와도 관련된다고(고미숙, 2010).

앞으로 진행될 도덕역량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심층심리를 고려하여 도덕성에 대한 한국인의 판단 기준에는 동서양의 차이가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도덕 행동을 결정하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미숙 (2010). 도덕적 인간상으로서 정(情)있는 인간 탐구. *윤리교육연구*, 22, 131-156.
- 김창대, 민경화, 윤숙경, 최한나, 공은혜 (2008). 대인 역량에 대한 직장인들의 인식: 한국의 사례. *Asia Pacific Education Review*, 9(2), 221-232.
- 문용린, 김민강, 이지혜 (2008). 한국인의 거짓말 유형과 정당화 양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15(3), 191-205.
- 민경화, 최윤정 (2007). 상담학 연구에서 개념도(Concept Mapping)방법의 적용. *상담학연구*, 8(4), 1291-1307.
- 윤혜경, 이지연 (2010). 중학생이 지각하는 또래관계 역량의 개념과 수준.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7(1), 1-18.
- 이군희 (2008). 사회과학 연구방법론. 법문사.
- 이지혜 (2012). 도덕귀감자의 도덕역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지혜, 문용린 (2011). 도덕성 발달 연구를 위한 역량중심 접근의 개념화. *인간발달연구*, 18(2), 227-254.
- 최상진 (2011). 한국인의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윤미 (2009). 대학원생이 인식하는 좋은 팀원의 특성: 팀웍역량 개발에의 함의. *아시아교육연구*, 10(3), 257-283.
- Colby, A., & Damon, W. (1992).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tment*. New York: The Free Press.
- Damon, W. (2004). *The moral advantage: How to succeed in business by doing the right thing*. Berrett-Koehler.
- Ellemers, N., Pagliaro, S., Barreto, M., & Leach, C. W. (2008). Is it better to be moral than smart? The effects of morality and competence norms on the decision to work at group status improv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5(6), 1397-1410.
- Frimer, A. J., & Walker, L. J. (2008). Towards a new paradigm of moral personhood. *Journal of Moral Education*, 37(3), 333-356.
- Frimer, A. J., & Walker, L. J. (2009). Reconciling the self and morality: An empirical model of moral centrality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45(6), 1669-1681.
- Hoffman, T. (1999). The meaning of competenc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23(6), 275-286.
- Jormsri, P., Kunaviktikul, W., Ketefian, S., & Chaowalit, A. (2005). Moral competence in nursing practice. *Nursing Ethics*, 12(6), 582-594.
- Kane, M., & Trochim, W. M. K. (2007). *Concept mapping for planing and evaluation*. Sage: California.
- Kim, M. K., & Sankey, D. (2009). Towards a dynamic systems approach to moral

- development and moral education: A response to the JME special issues, September 2008. *Journal of Moral Education*, 38(3), 283-298.
 - Liszka, J. J. (1999). *Moral competence: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study of ethics*.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Lucia, A., & Lepsinger, R. (1999). *The art and science of competency models: Pinpointing critical success factors in organizations*. Jossey-Bass.
 - Matsuba, M. K., & Walker, L. J. (2005). Young adult moral exemplars: The making of self through stor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5(3), 275-297.
 - Park, N., & Peterson, C. (2006). Moral competence and character strengths among adolescents: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values in action inventory of strengths for youth. *Journal of Adolescence*, 29, 891-909.
 - Sandberg, J. (2000). Understanding human competence at work: An interpretative approac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3(1), 9-25.
 - Straughan, R. D., & Lynn, M. (2002). The effect of salesperson compensation on perception of salesperson honest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719-731.
 - Trochim, W. M. K. (1989). An introduction to concept mapping for planning and evaluation.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12, 1-16.
 - Walker, L. J. (1999). The perceived personality of moral exemplars. *Journal of Moral Education*, 28(2), 145-161.
 - Walker, L. J., & Frimer, J. A. (2007). Moral personality of brave and caring exempla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5), 845-860.
 - Walker, L. J., & Hennig, H. K. (2004). Differing conceptions of moral exemplarity: Just, brave, and ca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6(4), 629-647.
 - Walker, L. J., & Pitts, R. C. (1998). Naturalistic conceptions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03-419.
- 1 차원고접수 : 2012. 7. 10.
수정원고접수 : 2012. 8. 17.
최종게재결정 : 2012. 9. 1.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Moral Competence: Identifying Moral Competence

Lee, Jihye

Moon, Yong-Li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regarding the question of 'moral competence'. A free-listing survey was conducted with 150 subjects to elucidate their perceptions of moral competence, and the collected qualitative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Concept Mapping' methodology. As a result, 8 categories and 80 competencies were identified. It has been widely thought that the domain of 'Moral-communion' was the key competency domain required for moral behavior. However, it was found that 'General-personal' domain competencies were also perceived as equally important as 'Moral-communion' domain competencies. The domain of 'Moral-communion' included items such as 'Altruistic citizenship(charity and donation, humanity, caring, etc.)', 'Social responsibility and trust(moral self-assurance, consistency, responsible, etc.)', 'Pursuing Universal values and general good(conscientious, keeping universal standard)' and 'Principled and sense of justice(courage, strong belief of acting, indissolubleness)'. The 'General-personal' domain included items such as 'Pursuing social relationship(sociability, emotional sensitivity, sensitive for other's needs, etc.)', 'Self regulation and maturity(self-reflection and introspection, perceptive, positive mind-set, etc.)', and 'Achievement and self development(active and spontaneous, love of learning, specific goals and vision, etc.)'. Lastly, the category of 'Fulfillment and the will to act(curiosity, strong will, power of execution, etc.)' revealed a concomitant feature of both domains. The results of the importance level test indicated that college students perceived the category of 'Pursuing Universal values and general good' as the most important in terms of moral competence. Office workers($M=5.21$) perceptions of the importance level regarding 80 moral competences were significantly higher($t=-5.21$, $p<.001$) than college students($M=5.07$).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office workers and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the performance level($M=4.71$).

Key words : moral competence, morality, concept mapping, moral exemplar